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의미있는 '몸짓'

평택 제과인, 공예작품전 및 이웃돕기 행사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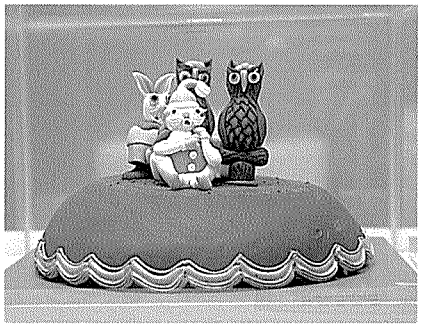
지난 1월 13일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는 이목을 끄는 행사가 열렸다. 대한제과협회 평택시지부(지부장 김성환)가 개최한 제1회 빵·과자 공예작품 전시회 및 이웃돕기 행사가 그것. 특히 이번 행사는 매출 부진의 영향으로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지금 같은 시기에 제과인들이 힘을 모아 남들은 엄두를 못낼 사건(?)을 벌였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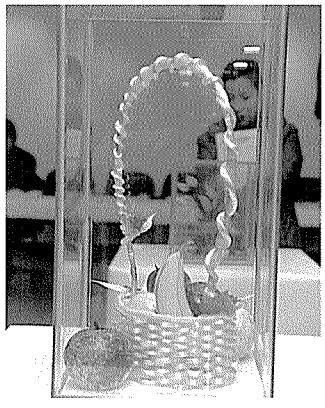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최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아울러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도 도움을 주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택 지역 제과인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김성환 지부장의 말처럼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평택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시장 곳곳에 평택시지부 회원의 노력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평택시지부 회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홍보하고 팜플렛을 제작했으며 작품을 유리 케이스 진열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다.

또 빵 공예를 포함해 초컬릿·설탕·마지팬·슈거 페이스트 등 과자 공예 50여점을 전시한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선보였으며 제작에 오랜 시일이 소요됐을 정도의 대형 작품도 눈에 띄어 그동안 평택 제과인들이 행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

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케이크 즉석 제조 판매 행사는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더 깊게 했다.





대형 제품과 정성을 들인 공예 제품은 평택 제과인이 이번 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가늠케 했다.

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며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공예 제품에 감탄을 연발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실시된 불우 이웃돕기 행사는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더했다. 생크림케이크를 판매해 수익금으로 불우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에서인지 전시장 한켠에서 아이싱을 하고 과일 데커레이션을 하는 실연자들의 손놀림은 분주하기만 했다. 또 관객들도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케이크 판매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 훈훈한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공예 제품에 대해 참관객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작품 제작과 행사 준비 등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시회를 열게 되니 좋은 일을 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이 가슴 뿌듯합니다. 한마디로 평택의 제과인이 이런 큰 행사를 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평택에서 제과점을 하고 있는 한 업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행사는 겉으로 드러난 행사 개최 목적 외에도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품을 만들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회원간 단결이 더욱 굳어지고 평택시 지부 소속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또 이번 행사가 매년 개최됨에 따라 이런 단결과 자긍심이 계속되리라는 '보이지 않는 성과'를 싹틔운 행사였기 때문이다.

〈글/박종선〉

많은 단체가 행사에 동참해 훈훈한 온정을 느끼게 했다.

"회원 단결과 자긍심 높이는 계기 마련"

배성억/기획위원장

보기 드문 행사인데 어떻게 전시회를 하게 되었나?

의기소침해 있는 시기일수록 활력을 찾을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과 제빵에 대한 이해를 넓혀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 불우 이웃도 도울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시간을 내 작품을 만들고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50여 품목마다 다른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고 몇몇 대형 작품의 경우 제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난하게 행사가 개최된 데는 적극 협조한 회원들의 힘이 컸다.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회원들의 단결이 더 굳어졌고 평택 제과인들이 이런 행사를 치렀다는 자부심도 커진 것 같다. 다음에는 이번보다 더 많은 회원이 출품에 참여하도록 해 '평택 제과인의 잔치'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